

지난달 취업자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29만9천명 늘어...5월 이후 20만명대 유지 실업률은 3.9%...7월 기준 19년만에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8만3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9만9천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33만4천명) 이래 가장 컸고, 5월 이후 석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1월에만 해도 1만 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월 26만 3천명, 3월 25만명, 4월 17만1천명, 5월 25만9천명, 6월 28만1천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1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천명) 등

에서 많이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9천명 줄었고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8만7천명 감소했으나 상용근로자는 43만8천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분은 1998년 12월(-28만1천명), 역대 7월 기준으로는 1998년(-27만2천명) 이후 최대치이다. 임금근로자는 34만9천명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5월 34만9천명 늘어난 이후 최대 폭이다.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작년 1월 48만5천명 이후 가장 크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2만3천명, 17만9천명 줄었으나 20대(2만8천명), 50대(11만2천명), 60대 이상(37만7천명)에서는 늘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0.1%포인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0.5%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난달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호조를 보였지만 실업자 수와 실업률 역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8천명 늘어난 10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는 역대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47만6천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2만명 감소했으나 60세 이상(3만2천명), 20대(2만4천명), 30대(1만4천명), 50대(6천명)에서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7월 중 2000년(4.0%)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7월 중 1999년(11.5%) 이후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중진공,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감사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동부그린환경 등 3개사를 선정,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부그린환경은 1996년에 환경설비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최근 1년 사이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후성기자

호남지방통계청, 나눔실천 헌혈행사

호남지방통계청은 14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나눔실천 헌혈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학, 휴가철 등 혈액이 부족한 특정시기에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조사로 바쁜 시기임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호남지방통계청은 기관차원에서 지역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지회

독도태양광발전소 건립 공로패 증정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지회는 지난 13일 광주 상무지구 모 음식점에서 '독도태양광발전소 건립 9주년 공로패'를 증정하는 원로회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지회 김종철 회장을 비롯한 한국전기공사협회 문유근 이사,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지회 노정규 부회장,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기업 이사, 전기공사공제조합 장학희 신성호 이사 등 광주지회 원로회원 및 전·현직 임원이 참석해 독도태양광발전소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하는 회원들을 축하했다. 공로패 수상자는 (합)서천사 백남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임이사, ㈜삼원전력 김원삼 대표이사, ㈜한백 윤흥 전 대표이사 등이다. /박은성기자

외식업체, 광복절 '애국심 마케팅' 활발

태극기 게양하면 쿠폰·기부 캠페인 등 잇따라

일본 상품 불매운동 속에서 맞는 올해 74주년 광복절에는 외식·식품업계의 '애국심 마케팅'이 뜨겁다. 파리바게뜨는 광복절인 15일 자사 매장에서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가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국민의 빵' 5종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사면 815원을 할인해주고 동시에 815원을 파리바게뜨가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적립금은 연말에 독립 유공 단체에 기부된다. 행사 대상은 쫄깃한 곡물호떡, 카스테라구마, 콩가루구마, 쫄깃한 찰떡막모스, 쫄깃한 왕파배기이다. '국민의 빵' 5종 결제 시 SPIC를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인 해피엠플을 통해 다운로드한 쿠폰을 제시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쿠폰은 15일 하루만 사용할 수 있다. 설빙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고객에

게 모바일 쿠폰을 주는 행사를 한다. 설빙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광복절 당일 설빙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팔로우하고 설빙 마스코트 '설동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게시물에 태극기 게양 인증샷을 올리면 응모된다. 추첨으로 74명을 선정해 빙과류 제품인 딸기치즈메론설빙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한돈 농가 비영리단체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5일 한돈 인증점을 방문하는 소비자를 추첨해 삼겹살·복살·얇다랗살 등 1.5kg으로 이뤄진 한돈 선물세트를 준다. 행사에는 전국 한돈 인증점 음식점 577곳 가운데 403곳이 참여해 소비자 1천612명에게 선물을 준다. /연합뉴스



역사 속 태극기 유포로 만나세요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제74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역사 속의 태극기' 기념우표 총 16종 112만장을 발행했다. 이날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유포박물관에서 직원들이 태극기 기념우표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건설현장 14개 도로 연내 착공·설계

국토부, 보고 의무 줄이고 자본금 특례 확대

정부가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하거나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 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건에 이를 정도로 보고 부담이 커 건설사들이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이다.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

도)-A(3조원·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원·2019년 하반기 착공), GTX-C(4.3조원·2019년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4조원·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원 투자), 노후 SOC 관리(4년간 32조원 투자) 등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 밖에 이번 방안에는 2천억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센터 입주 기업 현재 21개→2021년 50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미혼여성 절반 "결혼전 공합 봐야"

72.4% "공합 나빠도 결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미혼남녀 4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절반 정도가 '결혼 전 공합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4일 듀오에 따르면 미혼남성 202명과 미혼여성 21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51%는 "결혼 전 예비 배우자와 무조건 공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서 이런 답변은 43.1%였다. "결혼 상대와 공합이 나쁘게 나와도

결혼을 감행하겠다"는 물음에 여성 응답자의 72.4%가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 응답률은 49.5%에 그쳤다. "공합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3%가 "재미 삼아 본 것이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가볍게 넘겼고, 24.8%는 "영터리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합리화한다"고 답했다. 반면 23.8%는 "연애는 계속하겠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본다"라고 했고, 1.7%는 "안 맞는 상대임을 인정하고 헤어진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천경매
투자에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금매 전문

[금매]
○ 상가빌딩 : 광주역세권 대로변코너
대지800㎡ 간평463㎡ 연건평3,700㎡
금매28억(보2억5,000 월1700) == 시세반값
○ 운암동 모텔 객실21 층상기 주차장있음
월매출 700만원 금매4억
○ 유럽식 최고급 상가주택대229㎡
3층 건335㎡(편백, 황토방, 불박이, 최상인테리어)
= 무등산조망 대로변, 변호사, 의사전문직 사무실 겸용 최적 == 매가 상담후 결정
○ 담양읍 백동리 6차선도로변 잡3,700㎡
금매16억3,000 전시장, 가든, 병의원 등 최적
○ 오치동 주상복합 대385㎡ 건660㎡
금매 15억2,000(보6억5,000 월910만원포함)
○ 대인동 대로변 코너 상업지 대지 1100㎡
연건평5,300㎡ 금매60억 최고요지임대용 최적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등운고가입구

경매 투자자
오천경매
010-3605-5000